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영월 문산교회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포도를 판매합니다. 지난해에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성경봉독 시간에는 예배당 출입을 삼갑니다.

교회 점심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은 로비의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을하늘, 코스모스, 해바라기, 저녁놀... 가을의 말씀을 하루에 10분 이상씩 읽으십시오.

출 16:2~15 / 시 105:1~6, 37~45
빌 1:21~30 / 마 20:1~16

시 14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구성실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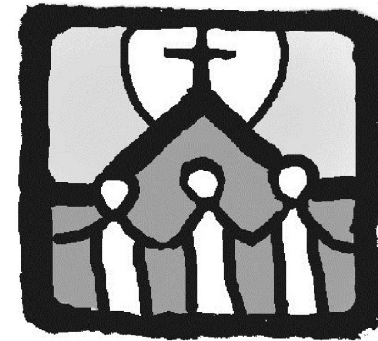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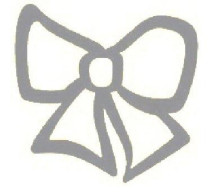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을하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맑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해주십시오. 높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넓게 살고 싶습니다. 자꾸만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만하라 외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조롱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인간됨과 공동체됨의 근간을 저버리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언자들이 꿈꾸었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성우 박유경 김성한 조영순 김신실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곽해자 김훈동 유경순 류준모 심호선 박범희 박미영 박예림
 박준희 이기분 백성례 성지현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임 오미경
 오상희 우순덕 원인혜 유금주 유상진 유은정 윤미경 윤수진 은종인
 이광섭 이부곤 이상준 이순용 이윤석 박안수 임서영 장기욱 정두리
 정복순 정연희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한규숙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김남홍 선우영 김숙현 김용진 김정진 김혜정 김태정 김향자 리우림
 민동혁 김수은 박미연 박순섭 권미숙 왕수명 이광석 이경희 이유일
 김미희 이은빈 이재문 이정은 임명희 정두리 정선희 홍성식 이유리
 무명10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이정우 장윤지 이희원 박희순 무명5

백혜숙	박성희	박영희	조순덕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차혜심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박정숙
노순옥	진정숙	문금석	안정숙
박홍재	박홍재	정선희	김경수
권미숙	박미영	허정윤	교회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순정
곽권희	윤수진	이정은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김오현
정영선	홍춘숙	홍춘숙	김경혜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임창선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마음으로 읽는 글

벌레 먹은 나뭇잎

- 이생진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된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 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노래를 늘 묵상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죄악을 경계하며 사십시오.

아멘.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부질없는 풍조를 따를 뿐,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노래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기도 : 이재훈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청년 중	정윤성 선생 청년 중

9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석희 이민범 홍춘숙 김경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로제 수사

로제 수사는 2005년 8월 16일 저녁, 떼제의 화해의 교회에서 공동기도를 드리는 동안 정신병을 앓는 여성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 형제들은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꼈고, 작은 우리 공동체는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치를 체험하며 “한 마음 한뜻”(행4:32)이 되었다. ...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다. 로제 수사는 마음 속에 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품고 있었다. 친교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그는 자주 “그리스도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과 친교를 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곤 했다. 이 비길 데 없는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로제 수사는 젊은이들이 이 친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그에게는 갈수록 분명해졌다. 그래서 로제 수사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다. ...

소년 시절에 로제 수사는, 복음은 신자들에게 준엄하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확신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이 때문에 그는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회의하기 시작하였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진정한 투쟁이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그의 열린 자세와 젊은이들을 경청하려는 열의는 이런 내적 투쟁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많은 젊은이들은 로제 수사가 매일 밤 공동기도 후에 항상 개인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준 분으로 기억한다. 그는 자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 말년에 기력이 없을 때도 저녁이면 교회에 앉은 채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다. ...

그는 늘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거듭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아우구스티누스(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다. 실제로 그는 가끔 이것을 놀라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한번은 캄캄타를 방문해서 병든 아기를 안고 돌아왔는데, 유럽에 가면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면 마더 테레사가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 아기는 정말로 살아나 떼제에서 자랐다. 또 태국의 베트남 난민촌에서 그가 만난 과부들이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떼제로 와서 정착하기도 했다. ...

로제 수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자주 인용했고 자신에 대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우리 수사들에게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장 직무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친교의 가난한 중”이라 불렀다. 그는 상처입기 쉬운 자신의 약함을 결코 감추지 않았다.

작은 우리 공동체는 로제 수사가 열어놓은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신뢰의 길이다. “신뢰”라는 말은 그가 함부로 쓴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맞이하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여기에 동반한 위험까지도 감수하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생명수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은 단순소박하고, 너무나 순수하기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산을 옮긴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과 폭력 그리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 알로이스 수사

- 떼제공동체, 「사랑을 선택하다」 중에서